

# 아리셀 참사 유가족, '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 앞 무기한 농성투쟁 돌입

조연주 기자 | 승인 2024.10.10 20:01

"아리셀 참사 주범 에스코넥을 처벌하라"  
"실질책임자 에스코넥, 유가족과 교섭하라"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오늘(10일)부터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아리셀 모회사 (주)에스코넥 앞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한다.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오늘(10일)부터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아리셀 모회사 (주)에스코넥 앞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한다.

유가족들은 이번 투쟁에서 에스코넥 경영진의 성실한 교섭과 진정된 사과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리셀 및 아리셀 지분의 96%를 소유한 에스코넥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중대재해 참사 이후 유가족에게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 또한 현재까지 성실한 교섭에도 나서고 있지 않다. 7월과 9월 두 차례 사측과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와의 만남이 있었으나, 원론적인 대화만 이어갈 뿐 양측의 입장 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박순관 아리셀-에스코넥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본부장의 민낯이 경찰 및 노동부 수사 결과 드러났고, 그들은 마침내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명백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분명히 했고, '이윤추구를 위한 최악의 참사'라고 표현, 노동사회의 일대 획을 그었다.

그러나 사측은 유가족들에게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하고 있지 않고, 교섭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은 110여 일째 아리셀 및 에스코넥의 범죄사실을 알리며 거리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한 유가족도 있다.

이에 유가족들은 분노, 아리셀 참사의 실질 책임자 에스코넥 앞에서 끝장 농성 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윤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아리셀 참사의 주범은 에스코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에스코넥은 유가족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배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